

“용돈 모아서 애플 주식”... 소년개미 떴다



Cover Story 10대가 이끄는 금융트렌드



10대 패션템으로 자리 잡은 '리그오브레전드' 체크카드. 신한은행



국가공인매경TEST

학생부 기재 가능 경제경영이해력시험

서울 서초구 세화고등학교의 교내 주식 동아리 'STING(스팅)'은 신입생 모집 때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인기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 학생들은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 주주총회안내장까지 지원서에 첨부하며 주식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어필하기도 합니다.

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승우 선생님은 “고등학생들이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전 투자 경험도 있다”며 “동아리에서는 학생 5-6명씩 조를 구성해 각자 10만원 정도 투자금을 내고 이를 모아 한 계좌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시장과 재테크에 대한 10대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계좌 수는 2019년 88만7000개에서 지난해 상반기 325만8000개로 3년도 안 돼 약 3.7배 늘어났습니다. 올 초 삼성증권의 설문조사에서 10대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은 세뱃돈과 같은 여유 자금을 저축보다는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10대들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들이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요즘 10대들은 유튜브, 틱톡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경제와 금융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최근에는 틱스, 쇼츠와 같은 숏폼을 활용해 짧고 간결한 영상으로 쉽게 금융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금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핀테크 기업들도 10대를 겨냥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mini 26일 저금' 상품은 26일 동안 매일 500원에서 2000원까지 소액씩 저축해 저금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토스는 만 7세 이상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유스카드'에 모의 주식투자, 급식표 제공 등 10대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케이뱅크의 '하이틴카드'는 청소년들이 편의점과 온라인에서 결제할 때마다 1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신한은행의 리그오브레전드 캐릭터 체크카드, 카카오뱅크의 프렌즈 체크카드 등은 인기 게임 캐릭터나 이모티콘을 카드 디자인에 활용해 10대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런 디자인 덕에 체크카드는 10대들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패션 아이템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김혜순 기자·박세윤 인턴기자

K렌즈만 끼면 나도 장원영...완전 럭키비키잖아



소곤소곤 우리들 이야기

K팝·뷰티 열풍 타고
아이돌 착용 렌즈 인기
하파크리스틴 명동 매장
日·中 관광객 바글바글



하파크리스틴 모델 장원영(왼쪽)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하파크리스틴 매장.



김도연 인턴기자·하파크리스틴 홈페이지 캡처

지난 8일 외국인들의 서울 여행 필수 코스라는 명동 하파크리스틴 매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하파크리스틴은 일명 '장원영 렌즈'로 널리 알려진 뷰티 렌즈 브랜드입니다. 입구부터 발랄한 핑크색 간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렌즈'라고 기재된 표지판도 눈에 띄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모델 장원영의 화보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고, 렌즈를 직접 착용해본다면 어떤 느낌인지 예상할 수 있게 투명 포토카드를 비치해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보니 하파크리스틴의 다양한 굿즈 상품 역시 판매 중이었는데요. 파우치나 렌즈 케이스, 키링 등 요즘 10대들의 취향을 저격한 톡톡 튀는 하이틴 감성이 돋보였습니다. 매장 관계자는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편이며 자연스러운 느낌의 컬러렌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하파크리스틴 매장에서 만난 일본 관광객 아미 씨(21)는 "한국 미용에 관심 있어 여행을 오게 됐다"며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뷰티 제품들이 톡 레벨 느낌이라 인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일본 여성도 "K팝으로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한국의 뷰티 제품이 일본 내에서 전반적으로 인기가 있고 요즘에는 한국산 컬러렌즈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본 젊은 여성 사이에서 K팝,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불면서 K뷰티 역시 대유행 중입니다. 이 흐름을 타고 K콘택트렌즈 역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 내 K팝 아이돌들의 메이크업이 유행하면서 한국산 컬러렌즈가 대표 한류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OTRA에 따르면 일본 컬러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국산 콘택트렌즈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4758만달러였던 일본으로의 콘택트렌즈 수출액은 2022년 5547만달러, 2023년 6600만달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8%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내수시장에서 한국 렌즈 유행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렌즈 시장 규모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콘택트렌즈 사용이 대중화돼 있는 만큼 일본의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2018년 기준 약 1564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본 전체 인구의 10~15%에 해당합니다. 특히 컬러 콘택트렌즈 시장은 연평균 2% 내외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컬러 콘택트렌즈 시장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컬러 콘택트렌즈 시장 규모는 3억3860만달러에 달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스페리컬인사이드&컨설팅에 따르면 2033년에는 7억6550만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경로가 안경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렌즈를 예약하고 주변 안경점에서 픽업하는 O2O(Online-to-Offline) 방식의 렌즈 판매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O2O란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이를 오프라인으로 옮겨온다는 뜻으로, 대표적 사례로 배달의민족,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미리 주문하고 오프라인으로 상품을 받는 O2O 방식은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진 유통 방식인데요. 콘택트렌즈 시장에서도 완전한 온라인 쇼핑은 아니지만 픽업 서비스 론칭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O2O 방식의 유통채널이 열린 겁니다. 일각에선 법적 규제를 우회한 방식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유통 금지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제3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을 실증 특별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해주시기로 하면서 O2O 방식이 합법화됐습니다.

김도연 인턴기자

경제공부 필수품
은·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다50736
발행간격 : 격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경제경영연구소 이매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역대급 폭염·물폭탄...물가도 뜨겁게 달군다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인플레 10%는 끓는 지구 탕”

한국은행은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가 국내 물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상기후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플레이션에 약 10%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특히 식료품·과일·채소 등 기후에 민감한 품목들이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입을 통한 대체 효과를 배제하면 이상기후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폭은 0.08%포인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상기후 충격이 발생하면서 약 12개월 뒤 산업생산 증가율이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 NIE 준비하기

1. 이상기후가 발생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2. 이상기후가 농림어업과 건설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충격 발생 후 약 3개월 만에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제 이상기후는 농림어업과 건설업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농림어업 성장률은 전년 동월에 비해 최대 1.1%포인트 떨어졌고, 건설업 성장률은 최대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일경제 8월 20일 A1면

뛰는 원화값...한은 통화정책 숨통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크게 상승하며 5개월 만에 1330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정책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인 2%로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고 말하면서 다음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습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였고, 이와 함께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등 아시아 주요 통화들도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 NIE 준비하기

1. 인플레이션과 금리 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 미국의 금리 인하가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지난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전 거래일 증가(1338.8원)보다 12.0원 상승한 1326.8원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증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1일(1322.4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매일경제 8월 20일자 A1면



핵심록!

10%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상기후의 인플레 기여치

1326.8원

8월 26일 달러 대비 원화 가격

0.76%

7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

서울 주담대 한도 최대 8% 줄인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수도권(서울 포함)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8%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를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시 사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높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란 대출자가 금리 변동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부과되는 가산금리로, 이번 조치로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이 금리가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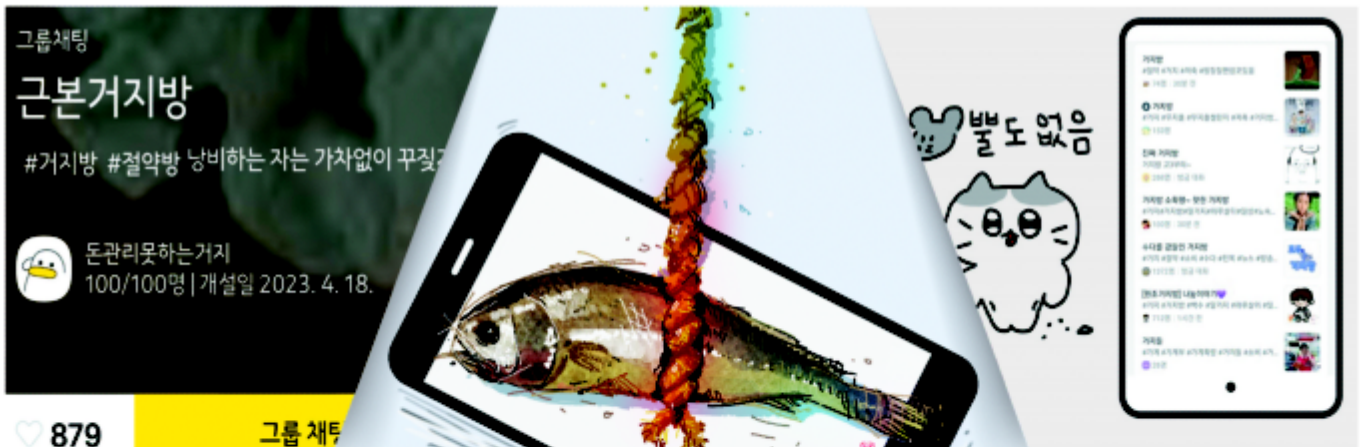
▶ NIE 준비하기

1. 가계부채와 주담대의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봅시다.
2. 추가로 도입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와 조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가 이런 ‘핀셋’ 규제를 꺼낸 이유는 서울의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6월 대비 0.76% 상승하며 5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매일경제 8월 21일자 A1면



“반팔? 긴팔 옷 잘라서 입으세요”… 짤테크 열풍



무지출 챌린지·0원 소비
SNS서 절약 콘텐츠 인기
앱으로 용돈 벌기도 유행
캐시워크·토스 등
걸음수 따라 포인트 제공

“반팔 하나 사도 될까요?” “돈남비입니다. 긴팔 잘라서 입으세요.” “삼다수 1100원 지출” “물은 학교, 회사에서 떠다 드세요.”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금융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절약과 저축을 중시하는 이른바 ‘짤테크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절약과 관련된 △무지출 챌린지 △0원 소비 콘텐츠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거지방 △라우드 버짓팅(loud-budgeting, 생활비 관리 선언)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짤테크 트렌드의 대표적 예로 국내 MZ세대 사이에서 이슈가 된 ‘거지방’이 있습니다. FLEX, 명품소비, 여행 등 지출을 억제하고 절약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커뮤니티인데요. #소비습관고치기 #티끌모아태산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오픈채팅방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소비 내역을 공유합니다. 각자 내역을 평가받고, 낭비를 감시하며, 때로는 타인의 과소비를 유쾌하게 지적하며 웃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라우드 버짓팅은 미국 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트렌드로 SNS를 통해 한 해의 지출 및 저축 계획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문화입니다. 개인적 목표를 대중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책임감을 기르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며 예산관리에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loud-budgeting’ 외에도 #Bougie Broke: 적은 예산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방법, #De-Influencing: 가성비 떨어지는 제품

정보 공개처럼 절약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MZ세대에게 절약은 단순히 개인적인 습관이 아닌, 재미있고 유쾌한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절약 트렌드를 이전의 소비를 통해 자기 만족을 채웠던 ‘FLEX 문화의 후폭풍’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전 세계 및 국가적 경기 침체로 MZ세대들은 과감했던 소비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예산에 맞는 적절한 소비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10대들은 간편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소소한 용돈을 벌기도 합니다. 캐시워크, 토스 등 걸음 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는 리워드 앱에서 소소한 금액의 포인트로 편의점 및 카페 교환권을 구매하거나 번개장터,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원하는 물품을 저렴하게 사고파니다.

자녀대상 용돈관리 앱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아이부자’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용돈과 함께 심부름과 숙제, 성적 등을 목표로 걸고 자녀의 성취도에 따라 추가적인 용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용돈 관리 앱 ‘퍼핀’은 목표 금액 달성을 돕는 용돈 저금통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용돈 기입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용돈을 모으고, 결제 및 송·출금, 주식 투자 체험, 공동체 기부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해린 인턴기자

매경 인턴들의 절약 습관

- ▶ 김도연 인턴: 평소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자주 하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해요. 이렇게 적립한 포인트로 인터넷 쇼핑을 하곤 합니다.
- ▶ 박세윤 인턴: 저는 가계부 앱을 활용해 지출을 관리하고

있어요. 카드와 연동되기 때문에 소비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카테고리별로 정리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해요.

- ▶ 장해린 인턴: 저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껌은 앱을 활용해 친구들과 여행 자금을 함께 모으고 있어요. 또한 백원 단위 금액을 모아 10만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카오뱅크 저금통으로 잔돈을 모으고 있어요.



“학폭 경각심 깨울 것” vs “소송남발 부작용 우려”

학폭 처분 대입 반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을 필수로 반영해야 합니다. 서울대는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평가해 서류평가에 반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성균관대, 서강대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총점 0점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의 경우 전학·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사실상 불합격 처리합니다. 이에 대해 당연한 제약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학폭 원인과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처벌이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찬성합니다



이의있어요

▶ 재범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필요

날로 교묘해지고 심각해지는 학폭 양상에 비해 현재 학교 측 대응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제도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피해 학생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기다리게 됩니다. 학폭위가 열려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정하더라도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서면 사과와 분리 조치, 교내 봉사 정도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1~9호의 처분 중 8호의 강제전학 처분은 전체 2%도 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재범의 요인을 그대로 안고 학교로 돌아갑니다. 실제 학폭 재범 학생의 10명 중 7명은 1년 이내 다시 학폭을 저지릅니다. 찬성 측은 가해자들이 현 수준 이상의 정당한 찝값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학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강화

교육부 대책의 핵심은 학폭 가해자가 졸업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도 올해부터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에 힘쓰는 일에 우리 국민 열에 아홉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폭예방연구소에서 19~59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폭 대응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살펴본 결과 우리 국민의 91.2%는 학폭 조치 사항이 대입 정시에 반영되는 데 찬성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학폭에 안일한 온정주의로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입 반영으로 가해자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학폭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학생 복지 강화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반대 측은 학교폭력 대입 반영이 폭력 근절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가 특별한 약의를 갖고 저지르는 사건도 있지만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배려를 받지 못한 학생이 경제적 빈곤이나 차별,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였을 때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생기부 기재와 대입 반영 규정은 단순히 개인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행위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전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학생들의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설령 가해자라 할지라도 약한 사람으로 규정짓고 단죄하기보다는 설득하고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수 학교의 자교생 입시 성공과 학교 위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 소송 남발 가능성, 학교의 책임 가중

대학 입시에 학폭 전력을 반영하면 가해 학생과 부모는 어떻게든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게 될 것입니다. 학폭 관련 법률시장이 더 커지고 법적 다툼이 잦아지면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큼니다.

학폭위는 가해자 처분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시비비를 밝혀야 하지만 사안 조사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 제재와 처벌이 강화될수록 법적 다툼은 심해질 것이고, 학교에서 끝도 없는 싸움이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국장은 “교육적으로 양측이 원만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막게 되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징벌과 사법적 절차가 강조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차별과 폭력은 은폐되기 쉽습니다. 장해린 인턴기자



1

대입 반영, 학교폭력 대책 될 수 있을까

2

재범 근절 및 사회적 경각심 고취 기대

3

불복 소송 증가 등 혼란 가중 우려도

‘미루기 王’ 이라면 ... 마감시한 1·2·3차 나눠보세요

Q.

이제 2학기가 시작됐네요. 지난주에는 여름방학 숙제를 몰아서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사정을 얘기해서 기한을 일주일 늘려서 어제까지 겨우 마무리했어요.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해야지 싶었는데 말이죠. 저는 항상 수행평가, 과제가 있을 때 마감이 될 때까지 미루게 되더라고요. 미루는 습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김나영 선생님의
쉬운 경제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의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운동 하기와 건강 식단 관리하기 등 스스로 약속하지만, 꾸준히 유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매일 아침 출근 전 30분 운동하고자 하지만, 편안한 이불 속에 좀 더 있고 싶은 마음에 미루게 되는 날이 참 많아요. 당분 섭취를 줄이겠다고 결심하고서도, 나른한 오후 달달한 게 당길 때 누군가 초콜릿 케이크를 내밀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운동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가 되기 일쑤예요. 눈앞의 만족을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하게 되는 ‘미루기’.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학기 말에 유독 아프거나 집안일이 생기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도 미루기와 연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학기 중 무척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학기 말 즈음 되니 체력적으로 지쳐서 병이 난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해야 할 일을 미루기. 누구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루는 습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수업에서 해 본 실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생들에게 수업과 관련한 탐구과제를 한 학기 동안 세 개씩 제출하도록 했어요. 수업에서 배운 경제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 써오는 거였어요. 저는 3년에 걸쳐 동일한 과제를 주고, 마감일을 다르게 적용했어요. 첫 번째 해(A그룹)에는 학생들에게 과제 세 개를 학기 마지막 날 한 번에 내도록 했고, 두 번째 해(B그룹)에는 첫 번째 과제는 학기 시작할 지 5주 차에, 두 번째 과제는 10주 차에, 세 번째 과제는 15주 차에 내도록 세 번의 마감일을 주었죠. 세 번째 해(C그룹)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마감일을 정하도록 했어요. 스스로 마감일을 정할 때 세 개 과제를 한 번에 내겠다고 정해도 되고, 세 개 과제를 각각 다른 날 내겠다고 정해도 되었지요. 스스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세 번으로 나눠서 제출하고자 계획을 짰 학생들도 있고, 학기 말에 한 번에 내겠다고 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저는 3년간 과제물을 채점해 성취도를 비교해봤어요. 학기 말 한 번에 세 개의 과제물을 내도록 했던 첫 번째 해 학생들의 과제물 성취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마감일 지키지 못한 학생들의 수도 가장 많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두 번째 해 학생들의 과제물 성취도가 가장 좋았어요. 과제물의 마감 기한을 늘려 달라는 요청도 가장 적었고요. 세 번째 해의 경우, 스스로 마감일을 세 번으로 나누어 정한 학생들의 과제물 성취도가 세 개 과제물을 학기 말 한 번에 제출한 학생들의 과제물 성취도보다 높았습니다. 스스로 마감일을 세 번으로 나눠서 정한 학생들만 놓고 보면 그들의 과제물 성취도가 두 번째 해 학생들의 평균보다도 살짝 높았어요.

이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발견한 두 가지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미루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감일을 나눠서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누군가가 정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계획을 짜서 마감일 나



게티이미지뱅크

누어 정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자신이 미루는 경향이 있는 걸 알고 스스로 마감일을 나눠서 계획하는 게 성취도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고요. 3년에 걸쳐서 했던 실험이다 보니 대상 학생들의 성향이 달랐고, 각 해에 생긴 사회 이슈 등도 달라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미루고자 하는 습관이 있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 어떤 일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면 미루기 습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을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반드시 자신이 그 계획을 지키게 만드는 강제 수단을 활용하면 더 좋을 거고요.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힘들다면 친구와 시간 약속을 해서 함께 조깅을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여러분도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자신만의 절제 도구를 마련하면 미루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 양정중학교 사회과 교사



1

해야 할 일이나 결심한 걸 미루는 경향이 있다면

2

스스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3

계획을 강제할 수 있는 자기 절제 도구를 이용해 보자

1948년 한은부터 인행까지...은행의 눈부신 진화



1994년 한국은행 독립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각한 가운데 한은노조의 사회단체들이 한은 독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신관 1층에서 집회를 갖고 한은 독립을 촉구하고 있는 한은노조. 이경호



김형리의
금융의 역사

대한민국 은행, 어떻게 탄생했을까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 시절,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은행이 없었고, 일본에서 만든 은행들을 사용해야 했다. 우리가 친구의 저금통에 돈을 넣고 필요할 때 꺼내 써야 하는 상황과 비슷한 것이다. 저금통이 있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거다. 일본이 우리나라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편했고, 스스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관리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해방 후 한국은행의 탄생

1945년, 드디어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래서 1948년에 '한국은행'이라는 은행이 만들어졌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돈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우리가 친구의 저금통 대신에 이제는 내 저금통을 가지게 된 것과 같은 의미다. 이 저금통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아주 큰 저금통이다. 한국은행 덕분에 우리나라는 스스로 돈을 만들고 관리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전쟁과 어려움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 때문에 많은 은행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모아둔 돈도 잃어버리게 된다. 집이 무너지고 저금통이 사라진 것처럼,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은행들도 없어진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나라 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정부는 다시 은행들을 세우고 사람들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돈을 모아 공장도 짓고 도로도 만들면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다. 은행은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데 필요한 돈을 모아주는 저금통 같은 역할을 했다. 이 시기 은행들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나라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나라를 발전시키는 은행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더 잘살기 위해 큰 계획을 세웠다. 이때 은행들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가족들이 큰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아

두는 것처럼, 나라 전체가 더 발전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모아 공장도 짓고 도로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이 시기에 생긴 은행들로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같은 곳들이 있다. 은행들은 국민이 저축한 돈을 모아 나라가 더 잘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큰 도로를 건설하는 일들을 은행들이 지원했다.

시장 경제와 자율 운영

1980년대가 되자, 은행들은 이제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정부가 은행들을 꼭 잡고 관리했지만, 이제 은행들이 스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 돈을 스스로 어떻게 쓸지 결정하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1997년에 큰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아시아 금융 위기'라고 불리는 사건이었다. 이때 많은 은행들이 돈을 잃고, 심지어 문을 닫아야 하는 일도 생겼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낸 은행들은 더 강해졌다.

디지털 시대: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의 등장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점점 발달했다. 이제 사람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쉽게 은행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카카오펀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생겨났고,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로 변했다. 이제 사람들은 집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도전, 똑똑해지는 은행들

최근 은행들은 더 똑똑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이 더 쉽게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AI 기술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어떤 금융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또, 은행들은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것처럼, 은행들도 환경을 생각하며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고객관리센터



시사용어 CHECK

한국은행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나라의 돈을 발행하고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아시아 금융위기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급격한 외환 부족과 금융 혼란을 겪은 사건.

1944년, 일본은 왜 갑자기 조선인을 징병했을까

…반도 동포(조선인)들이 동아시아 맹주인 일본 국민으로서 영광된 책무를 짊어질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 정부가 반도 동포(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시행 방침을 결정한 이유도 역시 … 반도 동포(조선인)가 이제 숭고한 병역에 복역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다. …
 ‘1942년 5월 8일 일본 내각의 발표’



조인 강사의
한국사 탐방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패망으로 치달던 시기 일본인 감시원의 통제를 받으며 전쟁물자 생산을 위해 강제 동원되고 있는 조선인 부녀자들.
 통성길 유엔평화기념박물관

1941년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강대국 미국을 상대하는 상황에 놓였다. 군사력 보강을 위해 일본은 이듬해 조선인을 1944년부터 징병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수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군으로 전쟁터에 투입됐다.

일본은 왜 징병제를 실시했을까?

일본은 처음부터 조선인의 징병을 빠르게 추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1938년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지만 일본은 그 당시 실제 전쟁 동원보다는 조선인에게 황국신민화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지원병제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징병을 50년 뒤, 적어도 20~30년 후의 일로 상정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계획은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큰 차질이 생깁니다.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은 200만명 이상의 군대가 필요했지만 실제 일본인만으로 병력을 충당할 경우 120만명에 불과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조선인들을 전쟁에 몰아넣는 징병제에 대한 선전 활동을 강화했으며, 그 주된 논리가 바로 ‘내선일체(일본과 조선은 하나)’였습니다. 조선인들이 병역 의무를 담당할 만큼 황국신민화되었고, 징병제 실시로 내선일체가 구현됐다는 일제의 논리는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한 대외용 명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었다던 나카 다케오는 ‘대동아전쟁의 승리가 조선 발전의 기회라는 말은 정치적 표현이었고, 사실은 전쟁에 투입할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일본은 민족 말살을 위해 어떤 방법을 썼나요?

1910년 조선이 식민지가 되었을 때, 일본은 조선인에게 ‘일본인’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조선인’으로 ‘일본 국민’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정책은 1930년대 이후 전쟁이 확대되면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식민지를 본국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식민지 및 그 주민을 본국의 국민으로 통합하는 정책’이 실시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요구합니다. 중일전쟁

(1937), 태평양전쟁(1941) 등 전쟁이 계속 확대되면서 전쟁터와 후방 병참기지에서 조선인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전쟁 시기 조선인의 정신을 개조해 전쟁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황국신민화 정책은 한국인의 일본인화이며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1937년 조선총독부는 일왕과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황국신민서사’를 만들어 학교, 직장에서 암송하도록 강요했습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모든 학교 수업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했습니다. 또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습니다. 1940년 부산지방법원장이 관내 공무원과 읍면장에게 보낸 문서(1940년 6월 12일)가 발견되면서 일본의 강요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일선동조론)’는 주장을 통해 조선인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민족문화를 지키려 노력했나요?

1920년대 유럽 유학을 다녀온 한글학자 이극로는 영국의 식민지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어가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이극로는 조선어학회(당시 조선어연구회)에 가입하고 표준어 제정,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한글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기관지 ‘한글’을 지속적으로 발간했습니다. 황국신민화 교육을 강조하며 1940년대 조선어를 금지한 일본에 조선어학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태평양전쟁 직후 일본은 조선어학회를 항일독립운동단체로 몰아 탄압했습니다(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수십 명의 회원이 구속되고 이윤재와 한징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독립운동단체의 열단 출신이었던 작가 이육사는 ‘청포도’ ‘광야’ 등을 발표하고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1943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별 헤는 밤’ ‘서시’ 등으로 유명한 운동주 역시 일본의 감시를 받다가 1945년 광복을 몇 달 앞두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강남대성학원 강사·전 이화여고 역사 교사



- 1 일본이 조선인 징병을 실시한 직접적인 배경은?
- 2 일본이 추진한 대표적인 민족 말살 정책은?
- 3 한국의 대표적인 저항문학 작가는 누구인가?

그곳엔, 우리가 잃어버린 여름이 있다

강원도 양양 어성전 계곡

어떤 계절을 좋아하느냐고 누가 물을 때마다 여름이라고 답하곤 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낮을 늘어놓으면 깊어진 빛의 상영시간 속에서 여름은 영화처럼, 나는 주인공처럼 뜨겁고 찬란하게 행복했다. 그 기억들에서 감각되는 여름의 뜨거움은 따갑고 짙하지만 쾌청한 데가 있어서 마치 고온건조된 빨래처럼 바삭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이었다. 영화 '그랑블루'의 파랑과 '기쿠지로의 여름'의 초록 사이에 내가 사랑하는 칠월과 팔월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여름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 기억 속 여름과 실제 체감되는 여름은 다른 계절이다. 아열대화로 인해 더위의 형식이 바뀌었다. 뜨거워도 가볍고 산뜻했던 대기가 요즘은 물막은 숨처럼 무겁게 축 늘어진다. 불경하고 흐물흐물하고 끈적거린다. 밖에 나가 30초만 서 있어도 습식사우나를 할 수 있다. 덩달아 수은도 올라 동해에 거대 독성 해파리들이 출몰했다. 8월 초 서해 격포 바다에 낚시하러 가서 보니 기온이 31도인데 수은이 32도다. 나는 내가 사랑한 여름을 잃어버렸다.

이번 여행의 목표를 '잃어버린 여름을 찾아서'로 정했다. 파랑과 초록 그리고 투명한 여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은 길지 않았다. 삼북더위의 한복판에서 나는 어느새 강원도 양양으로 가고 있었다. 젊은 남녀들의 '헌팅 성지'가 되어버린 양양 해변은 시끄럽고 불쌍사나울 뿐이다. 양양의 진짜 매력은 울울창창한 계곡에 있고, 거기엔 아직 아열대의 입김이 닿지 못한 산뜻한 여름이 반짝이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백두대간 오대산 해발 1422m 두로봉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흐르는 남대천, 그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물빛은 물고기가 발을 이룰 정도로 맑다는 어성전부터 불가의 법문처럼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법수치까지 흐르고 있다.

물가를 무단으로 점령한 평상과 파라솔, 백숙을 강매하는 호객꾼들 따위 추잡한 풍경 없이 고요하고 수수하게 흐르는 어성전계곡에 발을 담갔다. 발을 담그자마자 몸속에 파랑 초록 스위치가 한꺼번에 켜졌다. 적당히 차가워 자맥질하기 딱 좋은 물속으로 스노클링 마스크를 쓰고 잠수했다. 바다 스노클링과는 전혀 다른 수중 세계가 펼쳐졌다. 형형색색 화려한 바닷속에 비해 소박하지만 어성전계곡은 산천어, 돌고기, 모래무지, 참마자, 피라미 등 별사랑 같은 물고기들이 은빛 반짝임을 가득 뿌려놓은 꿈결이었다.

바위에 올라 깊은 물로 다이빙하니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다이빙 선수 흥내를 내뿜지만 배부터 떨어져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켰고 물보라보다 더 시원한 웃음이 터졌다. 자두와 복숭아를 베어 물며 쪽대로 물과 초록과 바람을 건지면 햇빛과 물방울이 일으키는 마찰에서 애완 무지개들이 태어났다. 나와 친구는 무지개 한 마리씩 어깨에 앉고 물고기 모양의 낭만을 잡았다. 말랑말랑한 발바닥을 간질이며 물고기들은 빠져나가도 오래 잃어버린 여름을 되찾은 기쁨에 미소 지었다. 못잡은 물고기는 통발이 잡아주리라. 미끼를 넣은 통발을 던져두고 펜션에 와 낮잠을 잤다. 여름 계곡 물놀이 후 낮잠만름다디달고다디단 것은 없다.



이병철 시인의
여행 스토리

낮잠에서 깨도 여전히 환한 여름이 자두 빛깔로 익어가고 있었다. 낮잠 자는 사이 냄비 속 큼지막한 토종닭도 어느새 맛있어졌다. 닭다리 좌악 뜯어 한입 크게 우물거리자 행복한 여름은 이제 영영 나를 떠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노을의 시선강탈과 계곡물소리의 ASMR은 그 어떤 유튜브 영상보다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나는 온 맘 다해 어성전계곡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곳의 아름다움을 구독하기로 했다.

물에는 어성전(魚成田), 하늘에는 성전(星田)이다. 밤이 되자 별빛이 펼쳐졌다. 은하수 수놓인 밤하늘 아래 별빛을 받아먹은 계곡물이 교묘히 흐르고, 줄을 당겨보니 통발 속에는 산메기와 동자개, 피라미, 갈겨니가 가득했다. 천렵 후에 끓여먹는 매운탕과 어죽은 여름 계곡 피서만의 낭만이다.

다음날 산새들과 매미들과 계곡물소리의 아카펠라를 들으며 산재개를 켰다. 이번 여름 가장 개운한 아침이었다. 4일과 9일에는 서는 양양오일장을 찾았다. 감자옹심이와 감자전과 콩국수를 친구와 나눠 먹으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말했다. 여름을 좋아한다고. 이런 여름 안에서라면 나는 언제까지나 소년이다. 여름이 변함없듯 소년도 늙지 않는다.

시인



여행정보

어성전·법수치계곡까지 가려면 물론 승용차가 가장 편하지만 대중교통도 꽤 수월하다. 서울 출발 기준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양양종합여객터미널까지 고속버스로 2시간이면 간다. 다시 양양터미널에서 7번, 7-1번, 77번 버스를 타고 30분만 가면 어성전리 종점, 차고 맑은 계곡 앞에서 내릴 수 있다.



빙하 공기방울 속에...80만년 기후데이터가 쫓쫓



신진화 박사의
신비한 지구과학

“지구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환경 속에서 태어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필자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구 온난화’에 대해 배우긴 했다. 그러나 이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은 것 같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폭우나 폭염과 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하며 우리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라는 말 대신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지구 평균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터져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할 때면 희망찬 미래를 들려주고 싶는데 기후학자들이 제시하는 미래 지구 시나리오를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필자는 빙하로 지구의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다. 빙하를 이용해 지난 80만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빙하는 얼핏 보면 얼음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이 둘은 매우 다르다. 얼음은 물이 얼어 형성된 것이나 빙하는 연중 내내 내린 눈이 수백년, 수천년 이상 동안 쌓이고 다져져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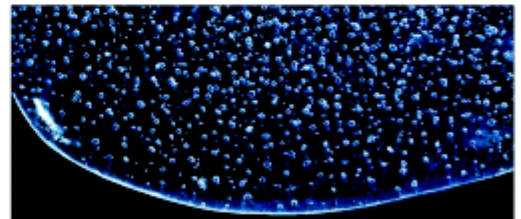
빙하에는 과거 대기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눈이 내려 땅에 쌓이는 잠시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중 흩날리고 있던 에어로졸이나 산불로 인해 발생한 숯과 같은 물질이 눈과 함께 쌓인다. 당시 대기도 빙하에 포집된다. 빙하 시료를 얇게 잘라 표면을 관찰해보면 투명한 빙하 속에 많은 공기방울이 보인다. 이것이 과거 대기다. 이 공기방울을 터뜨려서 모아 과거 대기 중 이산화탄소나 메탄 농도를 복원할 수 있다. 빙하를 녹여 에어로졸 농도 변화나 산불 기록을 복원할 수 있다. 빙하를 녹인 물을 이용해 눈이 형성된 지역의 온도 변화를 복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과거 기후를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기후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자연적인 타임캡슐인 빙하를 이용하면 과거 기후나 환경을 복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봄이 되면 겨울에 내린 눈이 녹아 버린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연중 내내 눈이 내리고 여름철에도 눈이 녹지 않는 지역이 있다. 바로 히말라야·알프스와 같은 높은 산이나 그린란드·남극과 같은 극 지역이다. 이 지역에 눈이 계속 내리고 쌓이면 과거 대기 기록이 연속적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지역에서 형성된 빙하를 원통형 기둥으로 된 시추기를 이용해 시추하면 수직적 빙하 시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빙하코어라고 한다. 빙하학자는 빙하코어를 이용해 과거 기후 기록을 복원하고 빙하가 남겨둔 과거 기후 기록을 읽으며 의미를 분석한다.

빙하학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도 미래도 아닌 지구의 과거를 연구한다. 그러나 단순 과거에 대한 연구로 그치지 않는다. 산업혁명 이후인 1950년대부터 사람들은 직접 기후 자료를 측정해 기후 실측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



그린란드 심부 빙하 시추 현장에서 획득한 빙하코어 모습. 신진화



빙하에 포집된 공기방울.

British Antarctic Survey

나 기후 실측 데이터의 길이가 매우 짧다. 게다가 데이터를 측정하던 당시부터 이미 인류 활동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인류 영향 없이 자연적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기 어렵다. 언제부터 기후가 인류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과거 기후 자료를 이용하면 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 빙하학자들의 노력으로 빙하코어를 이용해 지난 80만년 동안 연속된 기후 데이터를 복원했다. 현생 인류가 탄생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만~30만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랜 인류가 지구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적었다. 약 46억년의 지구 역사 중 지난 80만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다. 그러나 기후 조건이 지금과 매우 유사해 오늘날의 지구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다. 빙하로 얻은 80만년 동안의 기후 데이터와 오늘날의 실측 데이터를 비교해 현재 지구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지구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빙하학자는 과거를 연구하지만 사실 지금 지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빙하는 중요한 기후 정보를 우리를 위해 남겨두었다. 빙하는 기후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기록해두었다. 앞으로 짧은 연재 기사를 통해 빙하가 우리에게 남겨둔 기록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며 우리의 지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극지연구소 박사



- 1 빙하와 얼음의 차이는?
- 2 빙하로 복원할 수 있는 기후자료는?
- 3 왜 과거 기후를 연구해야 할까요?

난 경기도 안봤는데...올림픽 금메달에 기여했다고?



양궁 여자단체 10연패의 주역 임시현이 활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최병일 교수의 모든 것의 경제학

얼마 전 막을 내린 2024 파리올림픽은 많은 이들에게 뜨거운 여름을 잠시 잊게 해준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양궁 선수단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여러 메달을 획득하며 '역시 주몽의 후예' '하나님이 Bow하사'와 같은 유머와 믿음을 만들어내며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마 활쏘기를 직접 해 본 사람이라면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기량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양궁 선수들의 놀라운 실력은 해외 전문가들조차도 "신의 경지"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양궁 선수들의 놀라운 성과 뒤에는 선수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최첨단 기술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구진은 선수들의 손에 꼭 맞는 활을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했고, 인공지능(AI) 로봇이 훈련 파트너가 되어 선수들의 멘탈 트레이닝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쓰고, 읽고 있는 우리는 선수들의 활약과 메달 획득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늦은 밤 잠들지 않고 먼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한 것만이 우리 수고의 전부일까요?

선수들과 직접적인 접점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올림픽 중계 방송을 보며 응원한 것이 선수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경제 시스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선수들의 성공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급자족하던 중세 시대로 돌아간다면, 앞선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 응원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선수들의 메달 획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작은 마을이나 지역 단위의 폐쇄적인 경제 환경에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말 그대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이 직업인 사람은 선수들을 직접 태운 적이 없더라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수송하거나,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목격하지까지 태워준 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선수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의 음식은 준비했을 것입니다.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소비'라는 경제활동을 통해 선수들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는 선수 부모님의 소득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을 후원하는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경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번영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시장 경제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특화'와 '교환'입니다. 특화란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교환은 이러한 특화를 바탕으로 생산될 결과물을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궁 선수는 활 쏘는 기술에, 운수업 종사자는 운전, 식당 사장님은 요리에 특화되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한다'는 달인의 경지에 도달해 더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청소년의 경제 활동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소비에 있어 모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각자의 강점을 발휘해 시장 경제 체제에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엉뚱한 주장이라 생각되었지만,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선수들의 성공에 작지만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사례로 우리는 각자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시장을 통해 서로 협력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했다면 내가 열심히 살았던 하루는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대학교 교수



일출! 이 문장

고도로 발달된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말 그대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중고거래 불안한 이유는 ‘역선택’ 때문이죠



틴매경TEST
공부합시다



게티이미지뱅크

〈문제〉
아래는 중고 노트북 거래 사이트에서의 거래를 묘사한 것이다. 다음 중 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중고 노트북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판매자 100명과 구매자 100명이 거래를 위한 가격 흥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각 판매자는 1개의 물건만 보유하고 있고 사이트에 등록된 전체 물건 중 40%는 우량품, 나머지 60%는 불량품입니다. 각 물건이 우량품인지 불량품인지는 판매자 본인만 알고 있고 구매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는 거래 후기를 통해 전체 물건 중 우량품과 불량품이 각각 4대6 비율로 섞여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판매자는 우량품에 대해 최소 40만원을, 불량품에 대해서는 최소 20만원은 받길 원하며, 구매자는 우량품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불량품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량품을 가진 판매자는 매물을 회수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구매자는 ‘38만원 이하로 팔고자 하는 매물이 있다면 불량품이 분명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을, 판매자는 최소 20만원을 받고자 하므로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가격으로 불량품이 빠짐 없이 거래됩니다. 정답은 ③

중고 노트북을 싸게 살 요량으로 당근마켓에서 사려면 신경 써야 할 것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중고품이긴 해도 비교적 고가에 해당하는 데다 제품 하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웬만큼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춰더라도 이와 같은 거래가 꺼려지는 건 아무래도 중고 기기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월등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하자나 고장 이력과 같은 품질 정보를 판매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을 ‘비대칭정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생각하는 제품의 가치가 서로 달라 가격 흥정이 쉽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좋은 매물에 대해 제값을 받길 원할 것이고, 구매자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물건이 좋은 매물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원하는 대로 온전히 값을 다 지불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매물을 가진 판매자는 매물을 거둬들여 시장에서 철수하고 나쁜 매물만 헐값에 거래되기 쉽습니다. 나쁜 매물이 섞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매물의 가치가 평가절하돼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를 ‘역선택’이라 하는데, 말 그대로 나쁜 물건이 좋은 물건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거래 대상으로 선택된다는 뜻입니다.

비대칭정보하에서 거래는 역선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은 역선택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를 가진 측에서는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거래에 응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구직자들은 회사에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격증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또 학생들은 대학에 학생부를 비롯한 다양한 스펙을 제출합니다.

경제경영연구소 최봉제 책임연구원



시사용어 CHECK

비대칭 정보
제품 하자나 고장 이력과 같은 품질 정보를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역선택
비대칭 정보 때문에 나쁜 물건이 좋은 물건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거래 대상으로 선택되는 것.

- ① 아무 거래도 이뤄지지 않는다.
- ② 우량품만 4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거래된다.
- ③ 불량품만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거래된다.
- ④ 모든 매물이 4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거래된다.
- ⑤ 우량품은 4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가격으로, 불량품은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가격으로 각각 거래된다.

〈해설〉
구매자는 어떤 매물이 올라오든 40% 확률로 우량품, 60% 확률로 불량품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고 있는 물건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40%×50만원+60%×30만원’, 즉 ‘38만원’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생각하는 우량품의 가치는 40만원 이상이므로 구매자의 제안에 응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국어는 암기 안통해...하루 30분씩 읽는 습관 들이자

분명 중학교 시절 내내 반 1, 2등은 물론 전교권 성적을 자랑하던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진학 이후부터 맥을 못 추는 학생이 많다. 전국 단위 첫 공식 시험인 3월 학력평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점수와 등급에 눈물을 터뜨리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고등학생이 됐다는 설렘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말이다. 그동안 국어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어디부터 바로잡아야 할까.



이수민 강사의
국어 클리닉



이제까지의 국어 공부는 공부라 아니다
안타깝게도, 중학교 시절 내신 시험을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했던 학생들일수록 이런 현상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소위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일수록 이 장벽을 깨고 나오기 힘들어하곤 한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중간·기말고사를 준비하던 그 자세와 태도가 고등학교 국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능 국어'에는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 방법과 기본 태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동안 익숙했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접근한다면 수능을 보는 날까지 '국어는 도저히 답이 없는 과목'이 될 수밖에 없다.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국어 교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들을 하게 될지부터 알고 시작해보자. '비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 '독서' 영역과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문학' 영역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어 문법과 TV, 신문, 책,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특성에 대해 학습하는 '언어와 매체' 영역, 그리고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과 관련된 '화법과 작문' 영역이 있다. 영역에 따라 '지식 학습'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영역의 기본은 '글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암기와 정리를 기본으로 하는 과목들과는 태생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강의 듣기, 정리, 암기까 아닌 '독해력'

'열심히 강의를 듣고, 정리하고, 외워야지!'는 중학교 내신 시험에 최적화된 학습법이지만, 수능 국어를 위해 서라면 깨끗하게 비우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무언가를 자꾸만 받아 적고 외우고 싶다면, 그 본능부터 제어해야 한다. '국어는 어차피 해도 안 돼요'라고 울상을 짓는 학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이면 백 중학교 시절까지의 학습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해력'임을 늘 기억하고, 이에 맞는 학습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강의를 듣더라도, 강의에 임하기 전에 먼저 텍스트를 스스로의 힘으로

읽고 분석한 이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서를 학습한다고 하더라도 나와 있는 내용들에 형광펜을 칠하며 외울 것이 아니라, 아무런 설명도 붙어 있지 않은 텍스트 원문을 스스로 먼저 충분히 읽고 이해한 후 상세한 설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학습해야 한다.

독서는 물론 문학, 심지어 문법까지, 기본은 독해력

'문학은 작품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아야 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문법은 다 암기잖아요'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자. 수능에 출제되는 작품의 범위는 정해진 것이 없는데, 수십만 편에 달하는 문학 작품을 전부 공부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범위뿐 아니라 뻔한 작품을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묻는 것이 바로 수능이라는 시험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마주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문법 이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른 영역에 비해 지식 학습의 성격이 가장 강한 과목이지만, 이론 학습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주어진 자료와 예시문, 발문들을 누가 얼마나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하루에 딱 30분씩만 투자하자. 짧고 쉬운 글부터

하루에 짧은 글 한 편이라도 좋으니, 하루에 30분 정도씩만 투자하자. 어떤 글이든 스스로 한 문장씩 차분히 읽고 중요한 내용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요약,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사회나 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글들도 좋고, 현재 자신의 독해 수준에 따라 고1~고2 학력평가 국어 과목 기출 문제의 독서 지문을 활용해도 좋다. 과학계 어렵고 긴 글을 일부러 찾아 읽을 필요까진 없다. 요즘 학생들은 영상과 디지털 매체에 워낙 익숙하기에, 짧고 쉬운 글일지라도 꼭 참고 가만히 앉아서 읽어 내려가며 한 문장씩 이해하는 일을 생각보다 어려워한다. 처음부터 욕심낼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꾸준히, 매일매일 해나가겠다는 태도면 충분하다. 어느 정도 습관이 들고 나면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지속해 주면 된다. 국어 과목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물론, 신기하게도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의 성적까지도 같이 상승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메가스터디강사



핵심목!

- 1 중학교 내신 공부 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 2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근본은 '독해력'
- 3 하루에 한 편, 30분씩 꾸준히 글을 읽자.



3~4등급 학생 '정체의 늪' 탈출 열쇠는 문해력



주혜연 강사의
영어특강

3-4등급 성적대 수험생들은 정체의 늪에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한다. 아무리 공부해도 계속 같은 등급대를 맴돌기 때문이다. 분명 지문을 다 읽었는데 머릿속에 아무런 정보도 남아 있지 않아 읽고 또 읽다가 결국 문제들 다 풀지 못하고 시험 시간이 끝나고 만다는 공통적인 고민도 가지고 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우선 어휘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단어의 의미를 아예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분명 해당 단어의 의미를 외우긴 했는데, 그 의미가 한자어로 구성돼 있어 정확한 뜻이 아닌 대강의 느낌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즉 영어를 한자어로, 한자어를 다시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의미로 바꾸어야 하는 삼중고에 처해 있는 셈이다.

한자어 대신 평소에 쓰는 쉬운 말로 해석하자

Distance is a reliable indic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거리는 두 사람 사이 관계의 신뢰할 수 있는 지표다. (X)

↓

a reliable indicator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둘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O)

예를 들어 indicator라는 단어는 수험생들이 대부분 '지표'라고 그 의미를 알고 있다. 그리고 'Distance is a reliable indic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이라는 문장의 뜻을 몰으면 '거리는 두 사람 사이 관계의 신뢰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그럴듯하게 해석해낸다. 자 이번에는 '지표'라는 한자어 뜻을 외우는 대신 indicator는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소에 쓰는 말로 쉽게 풀어서 그 의미를 기억한다면 어떨까? '거리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정도로 문장 해석도 달라질 것이고, 이번에는 '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보면 둘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나 보네?'라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가 기억될 것이다.

추상적 표현은 다음 문장과 연결하여 이해하자

Humour involves not just practical disengagement but cognitive disengagement. (유머는 실제적인 이탈뿐만 아니라 인식의 이탈을 포함한다.)

↓

[cognitive disengagement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힘들다면 다음 문장과 연결하여 이해해보면 어떨까?]

↓

As long as something is funny, we are for the moment not concerned with whether it is real or fictional, true or false. (어떤 것이 재미있다면, 우리는 잠깐 그것이 진짜인지 허구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추상적·비유적 표현이다. 영어 시험은 전체 글의 중간

한 단락만을 발췌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반드시 앞뒤 다른 문장과 유기적으로 내용을 연결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Humour involves not just practical disengagement but cognitive disengagement (유머는 실제적인 이탈뿐만 아니라 인식의 이탈을 포함한다)'라는 문장만 읽고, cognitive disengagement (인식의 이탈)가 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면 해당 문장을 붙들고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다음 문장을 통해 유기적으로 이해해보자.

매력적 오답에서 벗어나자

① ignore uncomfortable comments from their close peers

(가까운 동료들의 불편한 말을 무시하다)

→ 지문에 동료와 관련된 언급은 없으니, 지문의 내용과 '무관한 선택지'

② receive constructive feedback from the media

(언론으로부터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다)

→ 지문에 언론과 관련된 언급은 없으니, 지문의 내용과 '무관한 선택지'

③ refocus their divided attention to a given task

(주어진 일에 흠어진 주의를 다시 집중시키다)

→ '주의 분산'에 관한 지문으로, 지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선택지'

④ engage themselves in intense self-reflection

→ 역시 '주의 분산'과는 반대되는 내용의 선택지

끝으로 정교한 선택지 분석을 통해 매력적인 오답에 속지 않아야 3-4등급의 늪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주의를 딴 데로 돌려 고통스러운 실패로 인한 심리적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제의 글을 읽고, 위의 선택지를 마주했을 때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무관한 내용의 선택지, 주제와 반대되는 생각을 담고 있는 선택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와 같이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오답을 소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투스 강사



핵심포인트!

- 1 어려운 한자어 대신 평소에 쓰는 쉬운 말로 해석하자.
- 2 추상적 표현은 다음 문장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자.
- 3 체계적인 선택지 분류를 통해 매력적 오답에서 벗어나자.



나만의 공부법 찾아야 통합과학 내신 1등급 보인다



이승후 강사의
과학탐구 특강

무더운 여름방학이 지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 1학기는 학년 및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학습량 및 성적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거라 생각된다. 너무 더웠던 날씨에 체력적으로 힘든 여름방학까지 더해져 방학 동안 계획했던 것처럼 공부를 다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여러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2학기를 맞이해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2학기 통합과학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3가지 절대 비법을 공개하려 한다. 통합과학 성적이 좋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그들의 공부 절대 원칙이 있다.

1. 공부 계획 세우기

공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스터디 플래너를 구입해야 한다. 머릿속으로만 계획을 세우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 없다. 따라서 스터디 플래너를 구입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때 화려한 디자인의 스터디 플래너를 사는 것은 금물이다. 스터디 플래너를 구입한 후 꾸미는 것에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계획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달 플랜, 일주일 플랜 단위로 계획하자. 내신이라고 해서 스터디 플래너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한 달 플랜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예: GT master 일주일에 THEME 2 단원씩 끝내기)을, 일주일 플랜에서는 구체적인 양(예: GT 통과 master 10p-12p 개념 정독 등)을 세워야 한다.

통합과학 공부 시간을 따로따로 체크하자. 사람마다 집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공부량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공부 시간보다는 하루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자.

2. 나만의 공부 방법 찾기

통합과학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 그 시행착오 끝에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

을 터득해야 적은 시간에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물론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터득하려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량이 적은 학생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통합과학 개념은 3번의 사이클을 돌려야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통합과학 수업 듣기→개념서 정독→노트 정리→기본 문제 풀이

(두 번째) 정리 노트 정독→심화 또는 기출 문제 풀이→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생각하기

(세 번째) 정리 노트 꾸준히 보기→틀린 문제 다시 풀기
백지 공부법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쓰는 보편적인 공부 방법이다. 백지 공부법이란 백지에 그날 배운 것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때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힘들다면 학습지나 참고서를 소리 내며 읽고, 백지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도 도움이 된다.

3. 점수에 비례하는 공부 시간

학교에서 수업 듣고, 학원 다니는 시간은 공부 시간이 아니다.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1등급 학생들의 하루 공부 시간은 평균적으로 6시간 이상, 시험 기간에는 10시간 이상이다. 그 시간 안에서 통합과학 내신 성적에 따라 공부 시간 비율을 잘 설계해 보자. 오늘은 통합과학 내신 1등급을 받는 3가지 절대 원칙을 이야기해 보았다.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원칙을 알고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다. 공부 의지를 키우기 위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해 보자. 여기에 공부가 잘될 때 또는 시험을 잘 보았을 때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키운다면 성적 올리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투스강사



- 1 구체적인 공부 계획 세우기
- 2 나만의 공부 방법 찾기
- 3 절대적인 자습 시간 확보

수능전 마지막 모평...수시·정시전략 최종점검을

9월 4일,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N수생을 포함한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있다. 수능 전 출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평가인 만큼 난이도 및 변별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는데, 올해 수능의 마지막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9월 모의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보완점을 찾으면 수능에서 보다 더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9월 9일부터 실시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에서 어떤 대학에 지원할지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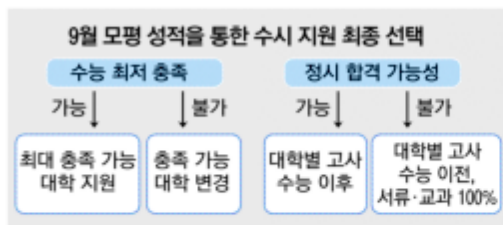
9월 모평 성적으로 수시 지원 전략 최종 점검해야

수시 지원 대학을 최종 선택할 때에는 9월 모평을 통해 2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다. 지원 희망 대학·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실제 수능에서 이를 충족할 수 있는지 9월 모평을 통해 최종 판단해야 한다. 만약 충족이 다소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9월 모평 성적으로 충족 가능한 대학·전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9월 모평 성적을 통해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을 예측해 수시 지원 대학을 최종 선택해야 한다. 수시 지원 대학이 9월 모평 성적으로 정시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라면 수능 성적을 보고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면접,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수능 이후에 있는 전형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면접이 수능 이전에 있는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9월 모평 성적으로 정시에서 서울시립대 합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비슷한 수준의 대학 중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가 있는 건국대 논술 전형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다.

반대로 수시 지원 대학이 9월 모평 성적으로 정시에서 합격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교과·서류 100% 전형이나 수능 이전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전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수시형-수능 최저 기준 어떤 영역으로 충족할 것인가

수능까지 70여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능 마무리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자신이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에 따라 수능 학습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수시형이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에 지원한다면 수능 4개 영역 중 우수한 영역을 선택해 확실하게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만약 수능 최저 충족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면 희망 대학이 탐구영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

2025학년도 종합·논술전형 수능 이전 대학별 고사 일정

전형	대학
종합	가천대(가천바람개비), 고려대(계열적합형), 광운대(광운 참빛인재), 동덕여대(창의리더), 삼육대(세움인재), 성균관대(탐구형-사범대), 이화여대(고교 추천), 한국외대(면접형), 한국항공대(미래인재), 한국외대(면접형-글로벌)
	가톨릭대(의예, 약학 제외), 단국대(죽전), 상명대, 서경대,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을지대, 홍익대

다. 정시 수능전형에서는 상위권 대학 대부분 탐구영역을 2과목 모두 반영하지만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서강대와 같이 탐구 적용 시 1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전형이 있다.

탐구는 다른 영역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성적을 올리기 쉬운 편이고, 또 2과목이 아닌 1과목에만 집중한다면 성적을 올리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다.

정시형-남은 기간 많이 올릴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수능형이라면 남은 기간에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위권 학생이라면 당연히 4개 영역 모두 열심히 준비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4개 영역 중 가장 많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3·4등급의 중위권 학생이라면 수능에서 한두 문항만 더 맞으면 백분위 점수가 크게 올라가는데, 이는 2024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탐구영역 생활과윤리에서 원점수 45점인 학생은 백분위 84점이었는데 만약 3점짜리 1문항을 더 맞았다면 백분위는 7점이 상승하고, 2점짜리 1문항과 3점짜리 1문항을 더 맞춰 원점수가 5점 상승했다면 백분위는 무려 14점이 올라 98점이 된다.

과학탐구영역도 마찬가지다. 지구과학 I 원점수가 42점인 학생은 백분위가 84점이었는데 3점짜리 1문항을 더 맞았으면 백분위는 8점이 상승하고, 2점짜리 1문항과 3점짜리 1문항을 더 맞춰 원점수 5점이 상승했다면 11점이 올라 95점이 된다. 이렇듯 한두 문제 차이로도 백분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수능에서 한두 문항이라도 더 맞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4 수능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 I 백분위 점수

구분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 I	
	원점수	백분위	원점수	백분위
1등급 사례	50	98	47	95
2등급 사례	48	91	45	90
3등급 사례	45	84	42	84

목표 대학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 대학의 2025학년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확인해 비중이 높은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요 15개 대학의 정시 모집 반영 수능 영역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는 국어와 수학,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을 비중 있게 반영한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남윤곤 소장의
대입 완전정복

재테크가 돈 벌기? 인플레이 공격서 '돈 지키기'죠

누구는 코인에 투자해서 부자가 됐다더라. 어떤 연예인은 빌딩을 사서 몇 억원을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관심을 두고, 학생들 중에는 '건물주'를 장래 희망으로 적어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에서는 주식 투자 동아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재테크 전성시대'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재테크도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재테크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적절하게 투자에 나서야 인생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테크가 뭐죠?

재테크는 재물(財)을 뜻하는 한자(財)에 기술(技)을 뜻하는 영어(tech)를 합해서 만든 말입니다. 재테크를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재물 기술' '돈에 관한 기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선 '재'와 '테크' 사이에 '돈을 ○○해주는 기술' 정도로 이어주는 말이 필요해 보입니다. ○○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돈을 버는 기술'입니다. 재테크를 잘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아마도 돈으로 돈을 버는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 최고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버핏을 '뛰어난 투자자'라고 말하지, '재테크의 귀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투자를 본업으로 삼는 전업 투자자가 될 것이고, 이는 재테크 영역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재테크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면 '돈을 관리하는 기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결국 재테크는 돈으로 돈을 버는 기술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 이번 돈을 잘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 코인에 관심을 두기 전에 장래에 갖게 될 본인의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테크가 돈을 관리하는 기술 정도라면 굳이 힘들어서 공부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월급으로 받은 돈을 그냥 은행에 맡기면 돈 잃을 일 없이 안전하게 재산을 불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은 법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단리와 복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복리의 마법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경우에 '단리와 복리' 방법이 있습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받는 것이고, 복리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100만원을 연 3% 이자를 주는 3년 만기 예금에 넣는다고 합시다. 만기일에 받을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면 매년 100만원의 3%인 3만원을 받고, 만기일에 원금 100만원과 3년 치 이자 9만원을 합해 10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번에는 이자를 복리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연도 이자는 3만원으로 똑같지만, 두 번째 연도의 이자는 103만원의 3%인 3만900원을 받게 됩니



매경DB

다. 그리고 세 번째 해의 이자는 103만900원의 3%인 3만 927원을 받아서 3년간 총 9만1827원의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리와 복리의 이자 수익 차이가 단기간에는 그리 크지 않지만 만약 기간을 50년 정도로 길게 잡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4%의 수익률로 투자하면 단리 이자의 경우 50년 후에는 300만원이 되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710만원으로 늘어나 단리보다 2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역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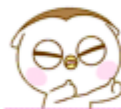
누구나 재산을 불릴 때 복리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복리 예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가치를 깎아 먹는 물가는 복리 방식으로 오릅니다. 내가 노후를 위해 연 4%짜리 은행 예금 통장에 넣어놓은 100만원이 50년 후에 3배로 불어나겠지만 만약 물가가 똑같이 매년 4%씩 오른다면 내 통장 안에 있는 돈의 실질 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날려버린 셈이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착실하게 돈을 모아도 내 재산의 실질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인플레이션의 늪'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재테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인플레이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적절한 투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ETNETF로 승부하라' 저자



허서운 기자의
틴재테크 첫걸음



시사용어 CHECK

복리의 법칙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라고 꼽았다.

“수술할 의사 없나요” 의료대란에 환자만 울상



쉽게 풀어쓰는 경제뉴스

지난 2월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의 대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 네 가지의 의료 개혁안을 다루고 있었는데,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의료개혁안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 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의사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의 여파로 의료 이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 의사들의 은퇴까지 늘어난다면 향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의대 증원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흔히 인용되는 통계는 우리나라 ‘환자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인데요. 국내 임상 의사 수는 환자 1000명당 2.6명(한 의사 포함)으로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은 수치이며 평균 3.7명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자원 배분 문제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의대 증원이 의료 공백과 지역 소외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전공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필수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는 줄고 있고 비급이 진료로 돈을 벌기 쉽거나 근무 강도가 약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생이 많아져도 인기 과 지원 추세는 변함없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우려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 공급 부족 의견에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구당 의사 수가 늘어나 의료 인력이 과잉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출생아가 감소할 것을 고려하면 인구당 의사 수는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



전공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돌입함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는 수개월간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폭등,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의사들의 임금 및 처우 악화 등을 근거로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인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은 대학 병원에서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뜻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아주 소수입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수개월을 넘어서면서 대학 병원에서는 입원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 환자 진료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불안에, 간호사들은 피로에 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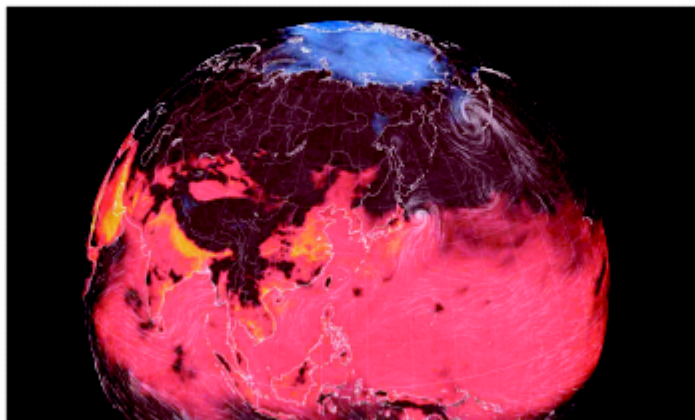
최근 환자 단체들은 거리로 나섰다. 대학 병원들의 무기한 휴진과 진료 축소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은 지난 6월부터 의사 집단 휴진 철폐와 재발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공백을 간호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 외의 일까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리 없이 해나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빅5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각종 동의서, 기초적인 수술 가능성 확인부터 레지던트가 하는 업무까지 간호사가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해린 인턴기자



사진렌즈 속 세상읽기

175년 관측 역사상 최고...가장 뜨거웠던 지구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지구 표면 온도는 평균 17.01도로 측정돼 175년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 이는 20세기 지구 표면 평균 온도 15.80도 보다 1.21도 높은 수치다.

7월 기온은 알래스카, 남미 남부, 러시아 동부, 호주, 남극 서부를 제외한 세계 육지 표면 대부분에서 평균 온도보다 높았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7월을, 북미는 두 번째로 따뜻한 7월을 기록했다. 월평균 지구 표면 온도는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상승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4시 기준 전 세계 불쾌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픽. 빨간색으로 표시될수록 불쾌지수가 높다는 뜻이다. 에스넵스



역사 잊은듯한 일본어 간판

광남고등학교 1학년 임연지

최근 간판과 메뉴판 등을 모두 일본어로 써놓은 식당이 늘고 있다. 공간 경험을 증시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며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국적이라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린다’ ‘한국에 오사카동(洞)이 생겼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서울 한 변화가의 일본풍 술집에 일제강점기 시절 표어인 ‘내선일제’와 비슷한 간판이 있어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광복 이후 일제의 잔재를 몰아내려 했던 과거를 잊고 일본식 문화를 우리 일상에 들여오려는 것 같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재팬’ 운동에 힘썼던 과거 분위기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지나친 일본풍 강조는 우리 문화의 전통성마저 해치기 시작했다. ‘천년 수도’ 경주시의 대릉원 일대는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로 지정돼 있으나 이곳 또한 최근 일본어 간판이 늘고 있다. 과도한 일본어 간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옥외광고물 시행령에 따르면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외국어 간판은 불법이다.

현지 감성을 살린 일본어 간판은 물론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다면 우리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흔들게 될 것이다.



무분별한 신상털기 규제해야

광남고등학교 1학년 박규리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사이버 레커와 같은 콘텐츠 제작자들의 사적제재가 파죽지세로 늘고 있다. 사적제재는 사법권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과 같다.

최근 모 유튜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자친구로 A씨를 지목했지만 그는 가해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신상 폭로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며 신상 공개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 결국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왔던 콘텐츠 제작자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콘텐츠 제작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이들의 사적제재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지만 무분별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나 제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사적제재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이 되기 전에 사법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시급한 청소년 도박중독 대책

광남중학교 2학년 김수민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광고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곧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도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171명으로 전년도 대비 2.3배나 증가했다. 청소년 도박 중독은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한 성매매처럼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충동 조절을 위한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로 도박 중독에 더 취약하다. 도박 중독 문제가 생기면 우울, 불안으로 이어지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향후 진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청소년 도박을 방지할 경우 성인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도박 콘텐츠 등에 대한 자율 규제에 나서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도 도박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도와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예방부터 치유까지 지원하는 사이버도박수사팀이나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 약자’ 교육 더 확대를

태전중학교 2학년 김민서

음식점, 지하철 등에서 키오스크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영문으로 표기된 메뉴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점도 장애물 중 하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 동행플라자’를 조성했다. 이곳은 디지털 활용 교육과 관련된 상담·체험을 지원하는 학습 및 문화 체험 공간이다. 상담사가 키오스크 활용법과 은행 업무·배달 주문·열차 예매·택시 호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알려준다.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서울 지역 기차역,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돕는 디지털 안내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사용법을 알고 싶다면 서울시민 누구나 주황색 근무복을 입은 디지털 안내사에게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고령자를 비롯한 디지털 약자들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만약 누군가 내앞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워 헤매고 있다면,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식이 아닐까.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21-201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48회 틴매일경 TEST



시험일

2024년 10월 19일 (토)

접수기간

9월 2일(월)~10월 7일(월)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일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